

고대 중국의 겨울 생활상 : 축제, 별자리, 신화*

-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

김 현 자**

- I. 겨울: 물의 계절, 은둔의 계절
- II. 겨울맞이 의례와 겨울 종교제 증(蒸)
 1. 북교(北郊)에서의 겨울맞이(迎冬) 의례
 2. 겨울 종교제 증(蒸)
- III. 보본반시의 축제들: 대할제, 납제, 팔사제
 1. 하늘마루(天宗) 제사와 대할제(大割祭)
 2. 납제(臘祭)와 팔사제(八蜡祭)
- IV. 창월(暢月) 동짓달, 그리고 군자의 재계(齋戒)
 1. 군자(君子)의 재계(齋戒)와 동지제
 2. 생명수를 일깨우는 동지제
- V. 대나(大難) 축제와 연극 '여인과 사슴'
 1. 대나(大難): 겨울 기운을 물리치는 난장 축제
 2. 여인과 사슴, 그리고 사냥꾼
- VI. 나가는 말

I. 겨울: 물의 계절, 은둔의 계절

이 글의 목적은 고대 중국의 겨울 의례들을 천착함으로써 유교 문화의 본질을 성찰하는 것이다. 유교 문화는 중국 지역을 벗어나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주류를

*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행해진 과제번호 2019S1A5B5A07111648의 연구 결과물이다. 분량이 과다하여 별자리와 신화 부분은 별개의 글로 분리하여 차후에 작성할 계획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루고 있으므로 이 작업은 동시에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겨울 의례들로 한정되기는 했으나 이 의례들은 천지인의 질서가 조화롭게 화합하여 때와 장소에 적합한 행위를 추구했던 유교 예(禮) 문화의 본질을 보여준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겨울은 전통적으로 한 해의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하는 때이자 우주 만물이 몸을 감추어(冬藏) 휴식하면서 새로운 소생을 준비하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맹동(孟冬)의 달 초순에 천자는 북극에서 겨울맛이 의식을 하여 온 세상에 겨울 기운이 퍼지도록 한다. 이어서 겨울 석 달 동안 거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와 축제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구성물을 비롯해 지상의 인간과 그 조상들에게 봄, 여름, 가을의 노고에 보답하는 보본(報本)의 의례였다. 동시에 이들을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 휴식하게 함으로써 내면에 생기를 축적하도록 했던 반시(反始)의 축제이자 이듬해를 대비하는 해넘이 의례들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입동일에 행해졌던 천자의 겨울맛이 의례와 겨울 첫째 달 상순에 거행되었던 종묘제인 증제를 고찰하겠다. 이어서 3장에서는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 마루(天宗)라 칭했던 존재들에게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했던 제사와 제후국의 토지 신(公社)과 문지기 신(門閭)에게 지냈던 대할제(大割祭)를, 그리고 선조와 오사(五祀)에게 지냈던 납제(臘祭)와 농경의 시조신, 곡령(穀靈) 그리고 농사에 기여한 선조와 만물의 혼령들에게 향응을 베푼 후에 흙, 물, 초목을 근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팔사제(八蜡祭)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탐구하겠다. 오늘날 납제와 팔사제는 대나(大難)와 혼합되어 겨울 마지막 달의 의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대 문헌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납제와 팔사제는 원래 초겨울 의례들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나 의례와 통합되어 선달의 납제로, 때로 종묘제사인 증제까지 합쳐져 납향제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동짓달에 행해졌던 물의 신령들에 대한 제사와 생명 기운을 일깨우는 동지제를 살펴보겠다. 동짓날 원구단에서 행해졌던 동지제를 거행하기 전에 왕은 7일간의 계(戒)와 3일 간의 재(齋)를 통해 천지인의 신령들과 만날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겨울을 마무리하는 선달의 축제인 대나 축제와 연말

에 공물을 가지고 입궁한 제후국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한 연극을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는 ‘여인과 사슴’을 주제로 이 연극이 명사수 예(羿)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들을 만든 토대였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근거들을 제시하겠다.

II. 겨울맞이 의례와 겨울 종묘제 증(蒸)

중국 전승에 의하면, 칙거와 은닉의 계절 겨울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계추(季秋)의 달 하순에 내리기 시작하는 흰서리이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霜降, 10월 23일~24일)의 명칭은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킨다. 상강 즈음에는 낮에는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나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한기가 물려든다. 한기에 계속 몸을 노출시켜 활동하면 봄, 여름, 가을의 오랜 노동으로 피로해진 인체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활동과 천지의 리듬을 조화시킬 책임을 진 천자는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린다.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霜始降) 모든 공인들(百工)은 휴업에 들어간다. 한기가 팔방에서 모여들면 백성들이 노동에 전딜 수 없으므로 모두 집에 들어가 쉬게 하라.”¹⁾ 칙거와 은둔의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왕은 대대적인 사냥(田獵)을 하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섯 가지 병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군사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사냥에서 잡은 짐승들로써 사방의 신들에게 겨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이다.

1. 북교(北郊)에서의 겨울맞이(迎冬) 의례

상강에서 15일이 지나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일(立冬, 11월 7일-8일)이다. 입동이 가까워지면 태사(太史)가 천자를 알현하여 입동일과 임금의 크고 훌륭한 덕(盛德)이 물에 있음을 알려준다. 왕은 입동 3일 전부터 몸을 정결히 하여 조상에 대해 순정한 공경의 마음을 갖는 재(齋)를 행하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재란 몸과

1) 『禮記』, 「月令」, 계추의 달(季秋之月).

마음을 가장 순수하고 밝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의식으로, 사람이 신령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²⁾ 3일 재의 기간 동안 왕은 옥을 갈아 만든 분말을 복용한다.³⁾

땅이 품은 광물들 중 하나인 옥은 여러 색상을 띠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옥은 에메랄드 그린색의 비취(翡翠)와 황색을 띤 황옥이다. 맑은 하늘과 바다는 대개 푸른빛을 띠고 있으나 에메랄드빛을 띤 바다는 특별히 맑고 투명하여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고, 황옥은 이른바 삼대(三代) 즉 하(夏), 상(商), 주(周) 문명의 터전이었던 황하(河水) 주변의 땅 색깔인 황토색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 전승에 따르면, 기장 못(稷澤)이라는 불리는 늪에서는 백옥(白玉)이 많아 옥이슬(玉露)이 솟아나오는데, 황제(黃帝)가 그 옥과 옥이슬을 먹고 마셨다. 옥(玉) 중에서도 특히 근유옥은 결이 치밀하고 다섯 빛깔을 내며 반짝거리며 강고함과 부드러움을 조화시킨다. 온 천지의 귀신들이 이를 먹고 마시며, 군자가 이 옥을 차고 다니면 상서롭지 못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⁴⁾

우주의 규칙적인 운동을 책임진 천자는 왕궁 깊숙한 곳에 은거하며 하늘과 땅(혹은 음양)의 정수인 옥을 복용하면서 겨울 기운과 소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윽고 삼일재(三日齋)가 끝나고 입동일이 되면 왕은 삼공(三公)⁵⁾과 구경(九卿)⁶⁾, 대부(大夫)를 거느리고 북쪽 교외(北郊)로 가서 겨울맞이(迎冬) 의식을 행한다. 자료의 부족으로 입동 날 북교에서 행해졌던 천자의 겨울맞이 의식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정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단편적 정보들을 참고하여 우리는 겨울맞이 의식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늘 기운(天氣)은 위로 올라

2) 『禮記』, 「祭統」, “齋者 精明之至也, 然後 可以交於神明也.”

3) 玉府라는 관원이 옥을 가루로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周禮』, 「天官冢宰」, 玉府, “왕이 재에 들어가면 식옥을 제공한다.(王齋則共食玉)”

4) 『山海經』, 「西山經」

5) 왕을 보좌하던 세 최고 관직으로, 주나라에서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가 있었다. 시대나 왕조마다 그 역할과 명칭이 달랐으나, 조선 왕실과 비교하면 대략 의정부의 세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직책이 삼공과 유사하다.

6) 오늘날 국가 주요 부서의 수장에 해당되는 아홉 고위 관직이다.

가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천지가 서로 불통하여 단절되면 겨울이 이루어진다(天氣上乘, 地氣下降, 天地不通 閉塞而成冬)”는 겨울 기운의 움직임이 그 실마리를 제공하므로 하늘과 땅의 겨울 기운을 주관하는 신들이 겨울맞이 의례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월령(月令)」에서는 계절별 제(帝)와 신(神)을 구별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제는 순서대로 태호(太昊, 큰 밝음), 염제(炎帝, 불타는 뜨거움의 제), 소호(少皞, 적은 밝음), 전욱(顓頊, ‘고개 숙인 정수리’ 혹은 ‘머리를 떨굼’)이다. “구부러진 털 끝을 의미하는” 봄-구멍(句芒) 신은 봄에 땅이나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을 상기시킨다. 여름의 신 축융(祝融, 녹기를 기원하다)에서는 여름 태양의 뜨거움 기운이 녹아들어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익게 하고 불타는 화염이 대장간의 쇠를 녹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읽을 수 있다. 가을-옥수(蓐收, 갈개를 갈아 거두어들이다) 신의 이름에는 창고 바닥에 거적을 갈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듯하다. 겨울의 신 현명(玄冥, 검은 어두움)은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북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또 문헌에 따라 제와 신의 의미는 상이하지만, 「월령」에서 언급되는 계절별 제와 신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는 ‘하늘 신(天帝, celestial god)’, 신은 ‘땅의 신(地神, god of the earth)’을 가리키는 시·공간 구분 용어로 추정할 수 있다.

주 왕조는 우주의 리듬을 조절하고 인간사회의 질서들을 우주의 리듬에 동화시키는 책임과 전권을 왕인 천자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주나라 천자의 집무실로 알려진 ‘명당(明堂)’의 공간은 계절별로 구획되어 그 명칭도 각기 다르다. ‘빛의 집’을 뜻하는 명당은 해와 달의 운행이 낮과 밤의 교체를 반복하며 지상에 밝음과 어둠을 드리우고 계절과 공간의 풍광을 다채롭게 장식하기에 ‘역(曆)의 전당’(프. Maison de Calendrier, 영. House of calendar)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명당의 북쪽에 위치한 겨울 집무실은 ‘검은 집’(玄堂, The Black House)라 불렸고 수도의 경계 밖 북교의 지명은 ‘어둠의 도시’(幽都, The Dark City)이다.

제사에서 사용되는 옥기(玉器)의 종류 또한 제사의 대상과 시기, 장소에 따라 다르다. 『주례(周禮)』에 따르면, 옥기(六器)에 속한 관리들은 하늘, 땅, 사방의 신들

에게 지내는 제사에서 사용되는 여섯 종류의 옥기를 만들었다. 하늘 제사에는 하늘처럼 푸르고 둥근 모양의 옥기인 창벽(蒼璧)을, 땅의 제사에는 땅의 형상을 본딴 정방형의 외관에 내부는 둥글게 파인 황중(黃琮)을 사용한다. 긴 홀의 끝 부분에 둥근 구멍이 뚫린 청규(靑圭), 위로는 끝이 갈라져 있고 아래에는 둥근 구멍이 뚫린 나뭇가지 모양의 적장(赤璋)⁷⁾, 호랑이 형상의 옥기인 백호(白琥), 벽옥을 돌로 나는 현황(玄璜)은 각기 순서대로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다.

이상의 정보들에 의거해 우리는 겨울맞이 의례의 과정과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3일재의 기간 동안 검은 옷을 입고 가루 옥을 복용하고 천지 신령과 소통할 채비를 끝낸 천자는 수도의 북쪽 경계 밖 ‘어둠의 도시(幽都)’에서 겨울 하늘 기운을 주관하는 전옥과 땅의 기운을 주관하는 현명을 맞아들여 겨울맞이 의식을 행했다. 천자는 겨울맞이 의식이 거행되는 제장에서 옥기 창벽과 현황(玄璜)을 사용하여 겨울 기운을 주관하는 하늘의 제 전옥과 땅의 신 현명을 맞아들인다. 이들에게 바치는 희생물 또한 겨울의 색상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검푸른 빛의 털을 가진 소를 바쳤다.⁸⁾

이제 천지가 서로 불통하여 단절하기 시작하는 겨울이 도래했으므로 우주만물과 인간은 모두 문을 닫고 칩거하며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한다.⁹⁾ 왕이 때와 장소에 합당한 성별된 공간에 겨울을 주관하는 제와 신을 맞아들여 겨울 질서를 재현했으니 왕조의 선왕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행위로써 표현해야 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겨울 종묘제 증(烝)

종묘제사는 각 계절이 시작되는 첫째 달의 상순에 길일(吉日)을 점쳐 지내는데,

7) 갈라진 끝 사이에 새 형상이 새겨진 것도 발견된다.

8) 『周禮』, 「地官司徒」, 牧人.

9) 『禮記』, 「月令」, 孟冬之月, “天氣上乘 地氣下降 天地不通 閉塞而成冬”

봄과 여름 제사의 명칭은 문헌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지만 가을과 겨울의 종묘 제사는 늘 상(嘗秋)과 증(烝冬)으로 지칭되었다.¹⁰⁾ 사계절(四時) 종묘제에서는 모두 소를 희생으로 바친다. 『주례』가 전하는 정보에 의하면, 목인(牧人)이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희생물인 소, 말, 양, 돼지, 개, 닭 여섯 종류의 가축(六畜)을 기르고 번식시켜 제공하면 충인(充人)은 각 제사에 합당한 가축 종류 중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것(牲物)을 골라 꼴을 먹인다.¹¹⁾ 오제와 선왕의 제사에 희생으로 사용될 소는 3개월 동안 너(牢) 혹은 척(滌)에 매어 두고 꼴을 먹인 후 제사 11일 전에 7일 동안 계(戒)를 행하며 3일간의 재(齋)를 한다.¹²⁾

종교사를 살펴보면 종교 의례는 대체로 태초 혹은 최초의 의식을 재현한다. 만일 종묘 제사가 주나라 종묘의 낙성식과 동일한 양상을 재현했다면 닭의 귀를 잘라 나온 피를 묘문과 협실에 바른 후 몸통을 잘라(割) 날것과 찢 것을 조(俎)라는 제기(祭器)에 올려 바쳤을 것이다.¹³⁾ 그러나 「제의」 편의 진술은 이와 다르며 보다 더 상세하다.

종묘제가 거행되는 날에 임금이 생우(牲牛)를 끌고 가면 세자는 이를 도우며 경대부는 위계의 순서대로 임금을 따른다. 묘문에 들어서 돌기둥에 희생물을 잡아매면 경대부가 상의를 벗고 그 털을 베어 바친다. 귀의 털을 먼저 베어 바친 다음 ‘방울 소리는 칼’ (鸞刀)로 희생물의 배를 갈라 그 피와 장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膾膂)를 잘라 바친다. 이어서 삶은 고기와 날고기를 조에 담아 바치고 물러난다.¹⁴⁾

제관들이 제장(祭場)에 각자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就位) 왕이 선왕의 신령들을 맞이하는 영신(迎神) 절차가 진행되는데, 향과 울창주(鬱鬯酒)를 사용하

10) 『周禮』, 「春官宗伯, 代宗伯에서는 봄, 여름의 종묘제를 각각 사(祀春), 약(禴夏)이라 칭했다. 그러나 『禮記』, 「祭統」 편에서는 봄-약〔春祭曰約〕, 여름-제〔夏祭曰禘〕로, 「祭義」 편에서는 봄-제〔春禘〕로, 여름 제사는 약(禴夏),

11) 『周禮』, 「地官司徒, 牧人, 充人.

12) 『禮記』, 「禮器」, “牲牛 三月繫七日戒三日宿.”

13) 『禮記』, 「雜記」.

14) 정현(鄭玄)의 주(注)에 따르면, 울(膾)은 피(血), 료(膂)는 장에 낀 지방을 가리킨다.

여 신령들을 맞이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그 정신의 주체인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를 이루는 백(魄)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므로 향을 피워 혼을 부르고 땅에 술을 부어 백을 불러 모시는 것이다. 소축(小祝)이 정화수(明水)로 깨끗이 씻긴 선왕들의 대리인 격인 어린아이(尸 또는 尸童)를 제장에 맞이하면¹⁵⁾, 왕은 먼저 그에게 술잔을 올리는 헌관의 예(獻裸禮)를 행하고, 이어서 술과 음식을 접대하는 궤식(饋食)의 절차가 진행된다.¹⁶⁾ 하늘 기운을 받아 땅이 키우고 물이 품은 온갖 산물들 중 독이 없고 식용 가능한 것들을 낚것으로, 포를 떼서 말리거나 구운 것으로, 또는 찌거나 탕으로 요리하여 올린다. 희생으로 사용된 소는 그 뼈와 몸체를 생으로 또 조리해서 진상한다. 만약 왕이나 왕후가 큰 제사에 직접 참여(親行)하지 못하면 최고 사제 격인 대종백(代宗伯)이 그들을 대행(攝行)한다.¹⁷⁾

큰 제사에서는 제사의 과정마다 반드시 악기 연주에 맞춰 노래와 춤(樂舞)이 수반되는데, 제사의 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악기들과 음악, 춤들이 선택되었다. 악장 격인 대사악(大司樂)은 왕이 출입할 때는 왕하(王夏), 시(尸)를 모실 때는 사하(肆夏), 희생이 들고 날 때는 소하(昭夏)를 연주하게 한다. 대사(大師)의 명에 따라 악기 연주자들이 당(堂) 아래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합창단 ‘고(瞽)’가 당 위에서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악사(樂師)는 공경대부의 자제들(國子)을 교육하던 국가 교육기관(國學)의 학사들(學士)을 인솔하여 춤을 추게 하는데, 악단이 출입할 때는 쇠로 만든 종(鐘)과 짐승 가죽으로 만든 북(鼓)을 쳐 연주한다.¹⁸⁾

동양 음악은 소리의 맑음과 탁함, 높낮이에 따라 열두 음계를 구분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았다. 육률(六律)은 양(陽)의 소리이며 육동(六同)은 음(陰)의 소리이다.¹⁹⁾ 음악이란 양의 소리와 음의 소리를 짝지어 배합하고 거기에 또 다섯 가지

15) 『周禮』, 「春官宗伯」, 小祝.

16) 『周禮』, 「春官宗伯」, 大宗伯.

17) 『周禮』, 「春官宗伯」, 大宗伯.

18) 『周禮』, 「春官宗伯」, 樂師.

19) 『周禮』, 「春官宗伯」, 大師.

소리(五聲²⁰)와 여덟 가지 음(八音)으로 꾸며서 널리 퍼지게 한 것이다. 음악이 6번 변화를 가져오면 천신(天神)이 하강하고 8번 변화를 주면 지시(地示)가 출현하며 9번 변화를 가져오면 인귀(人鬼)가 출현한다.

종묘 제사에서는 4면 고(鼓), 즉 두 개의 북을 틀에 매단 노고(路鼓)를 사용하고²¹ 양률(陽律)에 속하는 무역(無射)을 연주하며 음려(陰呂)에 해당되는 협중(夾鍾)으로 노래하여 음양을 조화시킨다. 이에 맞춰 무용단에 선택된 국자들이 주나라 무왕(武王)의 춤으로 알려진 대무(大武)의 춤을 춘다.²² 우주의 소리와 리듬, 인간의 극진한 공경심이 신들을 감응시켜 천지인이 화합하는 거대한 원융회통의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다.

제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목적, 사용하는 옥기나 폐백의 종류 및 색상들, 진설되는 음식들과 그릇들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계절 종묘 제사의 과정들은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사시(四時) 종묘제의 강신례에서 사용하는 술잔 이(彝)는 모두 받침 접시(舟)가 있으나, 봄의 사(詞)와 여름의 약(籥) 제사에서는 각기 동방을 상징하는 닭 형상이 새겨진 계이(鷄彝)와 남방을 상징하는 새(朱雀) 그림이 새겨진 조이(鳥彝)를 사용하고, 가을의 상(嘗)과 겨울의 증(烝) 제사에서는 곡물의 이삭이 새겨진 가이(罌彝)와 두 개의 눈이 새겨진 황이(黃彝)를 사용한다.²³ 특별히 겨울 증제에서는 봄, 여름, 가을 종묘제와는 달리 여러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땅을 하사받은 유공자들의 이름을 왕이 조상신들에게 아뢰는 배향공신제(配享功臣祭)가 포함된다. 사훈(司勳)이라는 관리가 그 공로에 여섯 등급을 매겨 왕의 깃발(大常)에 새겨 올리며, 그 중 특별히 큰 공적(大功)을 이룬 자에 대해서는 그 공훈을 기록해 관청의 천부(天府)에 보관한다.²⁴ ‘하늘 곳집’(天府)은 별의 이름이

20) 「월령」에서는 계절과 오음(五音)을 연관시킨다. 角-봄, 徵-여름, 宮-중양, 商-가을, 羽-겨울. 『周禮』에서는 이를 五聲이라 칭했다. 「春官宗伯, 大師.

21) 『周禮』, 地官司徒, 鼓人.

22) 『周禮』, 「春官宗伯, 大司樂.

23) 『周禮』, 「春官宗伯, 司尊彝. 계이와 조이, 가이와 황이는 각각 명수(明水)와 올창주를 담은 잔이다.

24) 사훈은 오늘날의 국가보훈처에 해당된다.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로의 유형에

기도 하다.

겨울의 첫째 달에 천자는 종묘제사뿐 아니라 하늘마루(天宗)에게 제사를 지내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제후국의 토지 신(公社)과 문지기 신(門閭)에게는 대할제를 지냈다. 또 선조와 오사(五祀)에게 납제를 지내고 농사에 기여한 못 존재들에게 팔사제(八蜡祭)를 지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들 제사의 목적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양식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 모든 것들에게 감사를 포함과 동시에 그동안 열려 있던 문을 닫아걸어 봄부터 가을까지 노동으로 피로해진 심신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⁵⁾

Ⅲ. 보본반시의 축제들: 대할제, 납제, 팔사제

제사의 목적을 언급하는 여러 예서(禮書)에서 우리는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되돌리기(報本反始)”라는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근본은 무엇을 가리키고 또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주지하듯이 근본이란 이른바 삼재(三才)라 칭했던 천지인을 가리킨다. 『주례』의 편찬자들 역시 우주 공간을 크게 하늘-땅-사람(天地人)의 세 영역으로 구별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구역을 주관하는 신령들과 이들에 대한 제사의 명칭을 달리 사용했다.²⁶⁾ 천신(天神)-사(祀) 또는 사(詞), 지시(地示) 또는 지기(地祇)-제(祭), 인귀(人鬼)-향(享)이 그것이다. 『사기(史記)』의 「예서(禮書)」 편에서는 근본의 의미에 주목하여 하늘, 땅, 혈족의 뿌리인 선조를 세 근본으로 거론한다. 빛과 어둠, 바람과 비를 내리는 하늘과 재물을 품은 땅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조상이 없이는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 훈, 절, 용, 노, 역, 다의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올린다. 『周禮』, 「夏官司馬」, 司勳, “王功曰勳, 國功曰切, 民功曰庸, 事功曰勞, 治功曰力, 戰功曰多.”

25) 『禮記』, 『月令』, 孟冬之月, “是月也 大飲烝. 天子 乃祈來年于天宗. 大割詞于公社門閭 臘先祖五祀 勞農以休息之.”

26) 물론 『주례』에서 이런 용어들이 일관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1. 하늘마루(天宗) 제사와 대할제(大割祭)

생명의 근본들을 기억하고 그 신령들이 베푸는 선물에 보답하는 마음을 구체적 행위로 표현해야 하늘, 땅, 조상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고대 중국 인들은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해 천신, 지기, 인귀들은 가뭄이나 장마, 폭풍우 등의 기상재해로 흉년을 겪게 하는 등 어떤 식으로건 되갚는다고 믿었다.²⁷⁾ 한 고대 예법가는 천지인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호혜적이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역설한다. “예는 오고 가는 것을 숭상한다. 가기만 하고 아니 오는 것은 예가 아니며,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 또한 예가 아니다.”²⁸⁾

그런데 고대 문헌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면 겨울의 하늘 주민들인 별들에게 바쳤던 제사는 보은의 성격보다는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년제의 성격을 띤다. 농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하늘마루’(天宗)를 해와 달(日月), 다섯 행성(五星), 그리고 12지(12支)의 별들(辰)로 설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단편적 정보들을 살펴보면 일월성신 외에 바람과 비도 포함되었던 것 같다. 전승에 따르면, 순(舜)은 새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종묘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후 하늘의 지고 신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유(類) 제사를 지내고, ‘여섯 마루’(六宗)에게 인(禋) 제사를 지냈다.²⁹⁾ 여섯 마루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월성신에다 바람과 비(風雨)를 포함시키거나 천지와 일월성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늘마루의 신령들에게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했다는 점과 하늘의 신들에 대한 제사를 언급하는 다른 정보들을 관찰해보면 전자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주례』에 따르면 인사(禋祀)는 호천상제(昊天上帝)에 대한 제사이며, 일월성신에 대한 제사의 명칭은 실시(實柴)고, 바람의 신 풍사(飄師)와 우사(雨師)에게 지내

27) 『詩經』의 雅와 頌의 시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28) 『禮記』, 「曲禮」, “禮尚往來. 往而不來 非禮, 來而不往 亦非禮.”

29) 『書經』, 「舜典」.

는 제사는 유료(糶)다.³⁰⁾ 하늘의 풍사와 우사는 각각 28수 중 동방 청룡의 일곱 번째 별자리 기성(箕星)과 서방 백호의 다섯 번째 별자리인 필성(畢星)이다. 고대 주석가들은 인 제사는 향을 피워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실사는 희생물을 나뭇단에 올려 불태워 지내는 제사이며 유료는 화톳불을 피워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라는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연기를 피워 올리는 방식이 다른 것 하나 이들 세 종류의 제사는 모두 하늘의 신들(celestial gods)에게 바치는, 즉 양기(陽氣)에 대한 제사에 속한다. 통상 흠 없는 동물을 나뭇단에 올려 불태우지만 때로 옥이나 비단 천을 불태워 그 향이 위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왕은 하늘마루의 신령들에게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울러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했던 것 같다. 해, 달, 별들에게 제사지낼 때 왕이 손에 잡은 옥기(玉器)는 규벽(圭璧)이다.³¹⁾ 이 옥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天圓地方)’는 고대 관념에 따라 둥근 형상이며 그 중앙에도 둥근 구멍이 뚫려 있고 네모난 손잡이가 달려 있다.

‘하늘마루’ 혹은 ‘여섯 마루’라 일컬어지는 일월성신 및 바람과 비는 풍작과 흉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긴 하나 곡물이나 초목의 씨앗을 품어주는 땅이 없으면 그 활동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해마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와 그의 딸 황금빛 이삭의 여신 페르세포네를 찬미하는 축제를 열어 갖가지 경연과 봉헌물으로써 이 신들을 찬미하며 감사를 표현했듯이, 고대 중국인들도 왕과 제후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곡물의 신 사직(社稷)에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³²⁾ 「월령」에 따르면, 휴식과 은둔의 계절인 겨울의 첫째 달에 천자는 대할제를 지내 제후국의 토지 신(公社) 및 집과 마을의 문지기 신(門閭)에게 고하고, 선조와 오사(五祀)의 신령들에게 납제(臘祭)를 지낸다. “두루 향음하는 증제를 지냈다(大饗烝)”는 직전 문구로 미루어 볼 때, 납제의 대상인 선조는 종묘의 7묘에 해당되지

30) 『周禮』, 「春官宗伯, 代宗伯.

31) 『周禮』, 「春官宗伯, 典瑞.

32) 물론 중국의 경우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인 사직신은 남성 신인 반면 그리스인들의 경우는 여성 신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을 찬미하는 축제의 형식과 진행 과정, 주제자들과 참여자들은 물론 그 신화의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않은 선조들인 듯하다.

왕실 조상의 사후 거처는 생전과 마찬가지로 더위, 추위,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벽이 있는 집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 신과 곡물 신이 머무는 곳은 하늘의 양기를 직접 받아야 하므로 지붕과 높은 벽을 둘러쳐서도 안 된다. “천자의 대사(大社)는 반드시 지붕을 덮지 않고 서리, 이슬, 바람, 비를 직접 맞도록 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달하게 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망국의 사직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양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³³⁾

토지의 신은 음기에 해당되므로 사제(社祭)에서 왕은 음기의 예법에 따라 사직단의 북쪽 울타리 아래에서 남쪽을 향해 선다. 희생물로는 소, 양, 개를 사용하며³⁴⁾, 검푸른 색의 털을 가진 개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땅에 뿌린다.³⁵⁾ 아마도 여성의 생리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듯이 음기인 토지의 신도 식량을 산출하려면 피를 흡수하는 과정(血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³⁶⁾ 신령을 맞이할 때는 세 개의 북을 매단 영고(靈鼓)를 사용하며³⁷⁾, 무용단이 추는 춤은 사직단의 땅이 동서남북 중앙 다섯 가지 색으로 구분되었듯이 오색 깃발을 손에 들고 추는 불무(帔舞)이다.³⁸⁾

천자의 사직단인 대사(大社)와 제후국의 사직단인 공사(公社)의 제사는 농경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왕과 군주가 제주 역할을 하고 국가의 관리들이 보조하는 국조의례다. 그래서 정작 봄부터 가을까지 강한 햇빛과 비바람에 부대끼며 토지에 직접 몸을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수많은 농민들, 햇볕에 검게 타 “검은 백성(黎民)”이라고도 불렸던 일반 민중들은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땅은 비단

33) 『禮記』, 「郊特牲」, “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 是故 亡國之社 室之 不受天陽也.”

34) 『禮記』, 「郊特牲」, “교제를 지낼 때는 수송아지를 바치고, 사직제에는 소와 양과 개를 바친다.(郊特牲, 社稷太牢)”

35) 『周禮』, 「地官司徒」, 牧人; 「夏官司馬」, 小子, 羊人.

36) 『周禮』, 「春官宗伯」, 大宗伯.

37) 『周禮』, 「地官司徒」, 鼓人.

38) 『周禮』, 「地官司徒」, 牧人.

농사일뿐 아니라 인간이 밭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이기에 한 해의 힘든 노동을 마무리 짓는 때에 그에 대한 감사의 몸짓을 표하는 것은 종교적 심성의 자발적 발로이다. 고대 예법가들이 이를 간과할 리가 없다. 그들은 백성들 모두가 그 제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각자 삶의 근본에 보답해야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마을에서 거행하는 토지 신에게 드리는 제사(社祭)에서 향사(鄉師)³⁹⁾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일손을 돕게 하여 “존재의 근본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친다.” 제사로써 천지의 은혜에 다 보답하도록 가르치지만 “오직 사(社)의 제사를 위해서만 구(丘)와 승(乘)⁴⁰⁾에서 온갖 곡식들을 가득 담아(稔盛) 공급한다.”⁴¹⁾

개별 가정에서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가묘(家廟)를 가질 수는 있으나 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대신 가정의 중심에 해당되는 중류(中溜)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허락되었다. 중류는 천장의 빗물이 땅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만든 홈통으로, 옛 가옥에서 지붕의 중심에서 땅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했으므로 중(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한다. 이 어원적 설명이 타당하다면 각 가정에서 행했던 이런 관행은 국조의례로서의 사제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이런 관행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가정에서도 토지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하늘과 땅, 아득한 선조의 신령들이 살아 있는 인간에게 베푸는 것은 일종의 선물이다. 신들의 선물을 받은 인간은 술이나 음식물 등의 공물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은총에 보답해야 한다. 보은의 행위에는 인간으로부터 감사의 선물을 받은 신령들은 때가 되면 다시 더 큰 은총으로 되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함축되어 있다. 프랑스 종교인류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 1950)는 그의 기념비적

39) 『周禮』에 따르면, 향사는 향(鄉)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교육을 맡은 관리이다. 25,000가 구로 이루어진 향은 대부(大夫)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鄉大夫)

40) 주나라에서는 경작지를 아홉 구역으로 나누어 여덟 가구가 900묘(畝)를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는 정전법을 시행했다. 가구당 100묘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취하고 중앙의 100묘는 공동으로 경작하여 국가에 조세를 바쳤다. 4개의 정을 가진 곳을 읍(邑), 16개의 정(井)을 경작지로 가진 곳은 구(丘), 64개의 정을 가진 곳을 승(乘)이라 했다.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 小司徒.

41) 『禮記』, 「郊特牲」.

역작 “선물에 관한 시론(Essai sur le Don)”에서 축제, 제사, 거래, 결혼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들에서 선물 ‘주기-받기-답례하기’라는 호혜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⁴²⁾ 우리는 고대 중국의 초겨울 의례와 함께 예론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겨울의 첫째 달에 천자는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천지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본반시의 의례를 거행했다. 그런데 ‘보본반시’에는 생명의 ‘근원에 보답하기’, 외에 또 다른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처음으로 되돌리기(反始)”이다. 보본의 행위 자체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몸짓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납제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팔사제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보본과 반시는 별개의 의식임을 알 수 있다.

2. 납제(臘祭)와 팔사제(八蜡祭)

존재의 움직임은 에너지(氣)를 필요로 하며, 쉬 없이 계속되는 에너지의 소비는 생명의 소멸, 즉 죽음에 이른다. 절대 다수의 생명체들은 하루 중 햇빛이 만물을 비추는 낮에는 일을 하고 어둠이 깔리는 밤에는 수면으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중 해와 달의 교체가 노동과 휴식의 순환 사이클을 만들듯이 일 년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의 차이는 노동의 계절과 휴식의 계절을 구별한다.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크고 작은 문명의 이기들과 주변 환경들도 생명체는 아니지만 휴식과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대 중국인들은 겨울에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제사도 잊지 않았다.

「월령」은 납제의 대상인 오사(五祀)와 이들 각자에게 제일 먼저 바쳤던 동물의 오장(五臟)을 언급하는데, 그 상응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봄의 사(祀)-지계의 신(호戶)-비장(脾, 지라), 여름-부엌의 신(조竈)-폐장(肺 허파), 중앙-중류의 신(中霤)-심장(心), 가을-문의 신(門)-간장(肝), 겨울-길의 신(行)-신장(腎 콩팥).⁴³⁾ 오사

42) Marcel Mauss, “Essai sur le don : Forme et raison de l’échange dans les sociétés archaïques,” in *Sociologie et Anthropologie* (Paris: PUF, 1973), 149-279.

(五祀)란 얼핏 사소한 듯이 보이나 사람들의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지게, 부엌, 흙통, 문, 길의 수호신들에게 동물의 오장을 바쳐 감사를 표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사에서는 상강 이후에 왕이 공경대부(公卿大夫)를 대동하여 대대적으로 거행한 가을 사냥(선전獮田, 혹은 전렵田獵)에서 잡은 짐승들을 사방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⁴⁴⁾ 납(臘)이라는 명칭은 바로 가을 사냥을 가리키는 령(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⁴⁵⁾ 사방 백물들에게 희생물을 바칠 때는 다방면을 상징하는 잡색 털을 가진 개를 잡아 사지를 찢어 각을 떼서 바치는데, 이런 방식의 공희 의식을 벽고(鬻辜) 또는 고(辜)⁴⁶⁾라 일컬었다.

「월령」은 선조와 오사를 위한 납제를 언급한 후 “노동으로 피로해진 농부들을 휴식하게 한다(勞農以休息之)”라는 문구로 끝을 맺는다.⁴⁷⁾ 그런데 팔사제(八蜡祭)의 목적 또한 힘든 노동으로 피로해진 백성(百姓)과 모든 존재들(百物)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사제를 지낼 때는 빈송(豳頌)을 읊고 토고(土鼓)를 쳐서 노물들(老物)을 휴식하게 한다.”⁴⁸⁾ “사제 이후 수확이 마감되고 나면 백성들은 휴식에 들어갈 따름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이 후에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강 이후에는 한기로 인해 몸을 상할 수 있으니 모든 공인들(百工)과 농부들은 일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가게 하라는 천자의 명령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고대 예법가들은 납제와 팔사제를 동일시하거나 전자를 후자의 한 의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 겨울을 마감하는 계동의 달에 거행했던 대나(大羅) 의례를

43) 월령이 제공하는 ‘계절-신체의 오장’ 상응 체계는 겨울을 제외하고 황제내경의 상응체계와 다르다.

44) 『禮記』, 「月令」, 季秋之月.

45) Gustave Schlegel, *Uranographie Chinoise*(星辰考原) (Leyde & E. J. Brill, 1875), 396, N.19.

46) 「春官宗伯」, 大宗伯, 「秋官司徒」, 犬人.

47) 『禮記』, 『月令』, 孟冬之月, “是月也 大飮烝. 天子 乃祈來年于天宗. 大割詞于公社門閭 臘先祖五祀 勞農以休息之.”

48) 「春官宗伯」, 籥章, “國祭蜡 則獻豳頌 擊土鼓 以息老物.”

팔사제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고대 문헌들이 사제를 12월에 거행되었던 축제로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제에 관한 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겨울의 시작을 준비하는 삶의 양상들과 겨울을 마감하며 봄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계절 리듬이라도 결빙의 시기에 접어드는 삶과 한기를 마감하며 해빙을 준비하는 생활 리듬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납제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제의 내용들만을 살펴보자.

나라에서 사제를 거행할 때는 각 지역에서도 농부들이 휴식을 즐기며 그 해의 수확물로 만든 갖가지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축제를 만끽했던 것 같다. 단 하루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는 흥년을 맞은 지방, 그래서 앞으로의 겨울을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하는 백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거행하기가 어렵다. 관리들은 백성들이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천하 각지의 풍흉을 기록하여 수확이 순조롭지 못한 지방에서는 사제를 거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수확이 순조로운 지방에서는 사제를 허락하여 백성들이 일탈의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다니게 한다.”⁴⁹⁾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며 사제를 즐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자공이 사제를 보고 오니 공자께서 물었다. 사야 즐거웠느냐? 자공이 대답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친 것 같았으나 저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백일 일한 백성들에게 단 하루 즐기게 허락하는 축제가 사이니, 자네가 그 즐거움을 알 리가 없지.”⁵⁰⁾

길고 힘들었던 노고의 긴장과 삶의 질곡들을 벗어던지고 미친 듯이 즐겼던 광란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칩거를 시작하면서 힘을 축적하여 이듬해를 대비해야 한다. 노동으로 육신이 피폐해진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땅과 물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크건 작건 나름대로 농경에 일조했으며 그래서 그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천자가 주관하는 사제는 바로 이들을 위한 의례이다.

천자가 친행하는 사제는 팔사(八蜡)라고도 불리는데, 농경에 기여한 여덟 신령

49) 『禮記』, 「郊特牲」.

50) 『禮記』, 「雜記」.

을 맞이하여 향응하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여덟 신을 정리하면, ①처음 농사를 시작한 농경의 시조(先耆)와 농사 기술을 개발하여 전수하는 과거와 현재의 농업 지도자들(司耆), ②백곡(百種)의 정령들, ③피약벌이 내리쬐릴 때 잠시 일을 쉬며 휴식하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 논밭 근처에 지은 자그마한 농막(廂)의 수호신, ④농부들이 오가는 논밭 사이로 난 길(表蹊)의 수호신, ⑤밭을 갈아엎어 채소와 구근을 훔쳐 먹는 두더지나 쥐(田鼠)를 잡아먹는 고양이(猫)의 신, ⑥농경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망가뜨리는 멧돼지(田豕)를 잡아먹는 호랑이(虎)의 신, ⑦논밭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가두어 저장해두는 제방(坊)의 신, ⑧비가 많이 내려 넘쳐나는 논밭의 물이 흘러나가게 만드는 수로(水庸)의 신이 그들이다.⁵¹⁾

겨울이 시작되면 모든 생명체들에게 식량과 거처를 제공하는 흙과 초목,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도 기운이 쇠해 노물이 되므로 휴식이 필요하다. 농부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기운을 회복하듯이, 이들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제에서는 큰 소리로 기원한다. “흙은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라. 물은 본래의 계곡으로 돌아가라. 곤충은 일어나지 말라. 초목은 본래의 대지로 돌아가라.(土反其宅 水歸其壑 昆蟲毋作 草木歸其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원으로 되돌리기’이다.

못 새들도 겨울이 되면 활동지를 떠나 북쪽의 대택(大澤)으로 되돌아가 깃털을 갈고⁵²⁾, 봄이 되면 다시 고향을 떠나 활동을 시작한다. 목초는 황하의 물길에 그 밑으로 숨어 흐르는 유탕(洑澤)⁵³⁾으로 돌아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수면을 취하며, 동물과 곤충들은 굴이나 땅속으로 들어가 칩거하다 봄이 되어 천둥소리가 들리면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해와 달이 서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세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 겨울이 지나고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풀이 된다. 이렇듯 ‘되돌아가는 것이 대자연의 질서, 즉 도의 움직임이다.(反者道之動)’

51) 『禮記』, 「郊特牲」.

52) 『山海經』, 「海內西經」, “대택은 사방 100리인데, 못 새들이 태어나고 깃을 가는 곳이다. 안문(鴈門, 기러기가 드나드는 문)산의 북쪽에 있다.”

53) 『山海經』, 「西山經」.

흙과 초목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에 스스로 수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제관이 발설하는 말의 힘, 즉 기원문과 주문의 효력이다.

겨울이 시작되면 천자는 검은색 가죽 옷을 입고 검은 띠를 두르며 검은 면류관을 쓰지만, 사제에서는 흰 가죽 모자에 흰 옷차림으로 제사를 지낸다.⁵⁴⁾ 흰 옷은 종말을 맞이한 백물들을 보내는 데 합당한 상복의 색이므로 가벼운 상장(喪杖) 차림을 하는 것이 노물들(老物)에 대한 인간의 예이다. 이들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다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한다. 하여 천자는 완전한 상례가 아닌 가벼운 상례(喪禮)로 보본반시의 의례들에 참여하며, 이를 모두 수행하고 나면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의 달을 맞이하게 된다.

IV. 창월(暢月) 동짓달, 그리고 군자의 재계(齋戒)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冬至)의 달은 바야흐로 양기가 기지개를 피려하나 우주만물이 내부를 충실하게 가득 채워야 하는 달(充實之月)⁵⁵⁾, 즉 창월(暢月, 가득 채우는 달)이지 아직은 칩거와 단절의 빗장을 여는 때가 아니다. 천자는 해당 관원들이 동짓달의 책무를 다할 것을 명한다. 백성들 또한 겨울 리듬에 동화된 삶을 누리도록 하고, 토목 공사를 일으키지 말며, 집과 창고의 문을 비롯해 저장한 후 닫아둔 뚜껑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하라고. 한편 동짓달 우주질서의 리듬을 친히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천자는 10일 간의 재계에 들어간다.

54) 「郊特性」, “皮弁素服而祭. 素服以送終也.”

55) 『예기집설(禮記集說)』 권45, 공영달(孔穎達)의 「소(疏)」, “言名此月爲充實之月 當使萬物充實 不發動故也.”

이달에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있다. 음양이 다투어 그 영향으로 만물의 내부에서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군자는 재계하고 집에 안거하여 그 몸을 드러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한다. 노래와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려는 욕망을 금지한다. 육체와 성정을 편안하게 하여 자신이 사물을 동요시키거나 사물에 의해 자신이 동요되지 않게 함으로써 음양의 두 기운이 안정되기를 기다린다.⁵⁶⁾

오늘날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하려 하거나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일에 임한다. 이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목욕재계(齋戒沐浴)’이다. 현대에는 ‘몸 씻기’가 재계와 동일한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고대 문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목욕은 재계의 일부로 보이며⁵⁷⁾, 재와 계도 사실은 다른 의식이었음을 알게 된다.

1. 군자(君子)의 재계(齋戒)와 동지제

「월령」에서 재와 재계는 구별되어 달리 사용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재는 각 계절의 첫째 달에 천자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영시(迎時) 의례를 행하기 전 3일 동안 치르는 의식이다. 반면 「월령」에서 재계는 3번 언급되는데, 그 중 두 번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중하(仲夏)의 달과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중동(仲冬)의 달에 행하는 군자의 재계(君子齋戒)이다. 일반적으로 군자는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으나 고대 예서의 용례들을 보면 하늘의 도(天之道)와 땅의 이치(地之理), 인간의 기율(人之紀)을 조화롭게 합치시키려 한 이상적인 통치자를 가리킨다.⁵⁸⁾

주지하듯이 하짓날과 동짓날은 음과 양이 기운을 끌어당기려 싸우는(陰陽爭)

56) 『禮記』, 「月令」, 中冬之月, “是月也, 日短至 陰陽爭 諸生蕩 君子齋戒 處必掩身 身欲寧 去聲色 禁耆欲 安形生 事欲靜 以待陰陽之所定.”

57) 재계목욕(齋戒沐浴)이라는 표현이 「祭義」편에서 발견된다.

58) 공자는 상고대의 여섯 성왕 우(禹), 탕(湯), 문(文), 무(武), 성왕(成王), 주공(周公)을 여섯 군자(六君子)라 일컬었다. 『禮記』, 「禮運」.

때이다. 하지에는 약한 음의 기운이 승기를 잡아 그 영향으로 시나브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고(生死分), 약한 양의 기운이 승기를 잡은 동지 이후에는 만물의 내부에서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역전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기에 변하는 서서히 일어나 생사가 반복되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속도를 재촉하려 하면 인간은 철이 들지 못하고 해, 달, 별들도 길을 잃어 제 때에 파종도 수확도 할 수 없게 되며 역병이 창궐한다. 자연의 질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왕은 하짓날과 동짓날 11일 전에 재와 계를 실행하여 음양의 두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도록 안정시킨다.

재란 몸과 마음을 가장 순수하고 밝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 후에야 사람이 신명과 교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의 기일에 앞서 11일 전에 먼저 궁재(宮宰)가 부인에게 재계를 알리고 부인 역시 산재 7일, 치재 3일을 한다.⁵⁹⁾

이렇듯 재계는 몸과 마음을 가장 맑고 순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며, 이를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신명과 서로 통할 수 있다. ‘산재 7일, 치재 3일(散齋七日, 治齋三日)’ 또는 ‘7일 계와 3일 숙(七日戒三日宿)’⁶⁰⁾이라는 『예기』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와 계는 각기 치재(治齋)와 산재(散齋), 또는 숙(宿)과 계(戒)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전자의 기간은 3일, 후자의 기간은 7일이다. 여기서 숫자 7과 3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하필 재계의 기간이 10일이며, 산재(계) 7일이고 치재(재) 3일일까? 군자의 재계를 강조하는 『예기』의 문장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치재는 안을 다스리는 것이고 산재는 밖을 다스리는 것이다.”⁶¹⁾ ‘석 달의 재를 통해 마음을 죽이고 형태를 파괴한다’는 『열자』의 내용과 육체와 성정, 욕망이 거론된 사실을 통해 안과 밖이란 곧 마음과 몸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재 7일이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七竅)을 자극하는 외물을 멀리

59) 『禮記』, 「祭統」.

60) 『禮記』, 「禮器」.

61) 「祭義」.

함으로써 마음을 텅 비게(虛中)⁶²⁾하여 안정시키는 기간이라면, 치제 3일은 몸을 깊숙한 곳에 숨겨 여인과 음악과 맛있는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과 맑고 청정한 옥을 복용함으로써 텅 빈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재와 계 10일은 몸과 마음을 텅 비고 청정한(虛靜) 상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오묘한 천지의 기운과 합일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주 왕조에서는 동짓날을 새해의 첫날(歲首)로 정하는 역법을 채택했다고 한다.⁶³⁾ 동짓날을 기점으로 양기가 그 세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지상에 생명 기운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이 한 해의 시작에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동아시아 지역의 궁내와 궁 밖에서 펼쳐졌던 명절 풍속들은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한 무제(漢武帝) 태초(기원전 104년-101년) 때 역법을 고친 이후 하 나라 역법을 사용했으므로 동지제에서 신년 축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재계가 필요한 동짓날과 시작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동지 의례의 공간과 악무에만 주목해보자.

악서(樂書)가 전하는 정보에 도움 받아 추론해 보면, 치제 3일 산재 7일의 재계를 마친 천자는 동짓날에 원구(圓丘 또는 圜丘)단에서 새해맞이 의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식에서는 금속(金), 가죽(革), 돌(石), 실(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나무(木)로 된 악기들이 총동원되어 음악을 연주했고, 무용단은 운무(雲舞)를 추었다.⁶⁴⁾ 『주역』의 팔괘 중 물을 상징하는 감(坎)의 도해적 표상(☵)은 두 음(陰)이 양을 가운데 품고 있는 형상이다. 원구단은 지상의 하늘에 해당하는 신성한 장소이므로 양의 기운이 막 어둠을 뚫고 나오려 할 때 천자는 신하들을 대동하여 그곳으로 가 ‘골짜기의 여신 현빈(玄嬪)의 문(谷神玄嬪之門)’을 열어야 한다.⁶⁵⁾ 황제가 부리는 형태 없는 구름의 춤사위(雲舞)는 이에 감응하여 구름이

62) 「祭義」.

63) 『史記』, 「曆書」; 『漢書』, 「藝文志」. 『詩經』의 시에서 ‘一之日’, ‘二之日’은 각기 동짓달과 선달을 의미한다. 「豳風」, 七月.

64) 『周禮』, 「春官宗伯」, 大司樂.

65) 『淮南子』, 「主術訓」은 하늘 형상의 둥근 원(天圓)은 임금의 도, 네모난 땅(地方)은 신하의 길이라고 말한다.

서서히 수많은 형태를 만들면서 저마다 하늘에 자기 자리를 잡도록 도울 것이다.

2. 생명수를 일깨우는 동지제

재계를 통해 동지의 질서를 체화한 왕의 온전한 덕은 물의 특성에서 드러난다. 천자는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물결이 희미하게 솟아오르는 생명 기운인 양기를 삼키지 않도록 바다, 강, 못, 우물과 샘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을 내린다. 이들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우물이나 샘에서 식수를 얻어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을 품고 있는 강과 못(川澤)에서 물고기를 낚아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며, 말라버린 토지는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 강물이 흘러 가 바다에서 모이므로 강은 바다의 근원이다. 근본을 중시했던 하·은·주 삼대의 왕들은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바다(海)보다 강(川)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는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⁶⁶⁾

「월령」에서 물의 신과 정령들에 대한 동짓달의 제사는 그 대상만 거론될 뿐 다른 특별한 명칭은 언급되지 않는다. 물의 신령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한 정보들은 대개 산천이나 산림천택의 제사를 언급하는 문장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경書』, 「순전(舜典)」은 산과 물의 신령들에 지내는 산천제를 망(望)으로 명명하며⁶⁷⁾, 산천제에서의 악무(樂舞)의 종류는 동일한 문헌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대하(大夏)로 또 다른 곳에서는 병무(兵舞)로 달리 규정된다.⁶⁸⁾ 하나라를 창건한 우(禹)의 공적은 산을 정비하고 강의 물길을 바로잡아 중국을 아홉 주(九州)로 나누어서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으며, 역류하여 넘치는 강물의 물길을 바로 잡아 대홍수의 재앙을 다스린 치수(治水)의 영웅이다. 병무(兵舞)는 왼손에 방패, 오른손에는 도

66) 『禮記』, 「學記」.

67) 『書經』, 「舜典」.

68) 『周禮』, 「春官宗伯, 大司樂, “舞大夏以祭山川.”; 『周禮』, 「地官司徒, 舞師, “舞師掌教兵舞 師而舞山川之祭祀.”

끼(干戚)를 들고 추는 춤이라 무무(武舞)라고도 불린다. 상나라를 굴복시킨 주(周) 무왕의 춤 대무(大武)는 종묘 제사에서 추는 춤으로 알려졌다.⁶⁹⁾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겨울 산천제에서의 악무는 대하로 보는 것이 고대 전승에 부합된다.⁷⁰⁾

강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川祭)의 희생물로는 잡색의 털을 가진 개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 예법가는 말한다.⁷¹⁾ 겨울 제사에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잡색을 띤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좋다고 했던 까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 강물에 합류하는 물의 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천이 고갈되면 산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은 망국의 징조로 간주되었다.⁷²⁾ 그래서 천자는 물의 신에 대한 제사는 물론 해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은 네 개의 큰 산 사악(四岳)의 제사를 극진히 지냈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왕의 죽음을 산이 무너져 내리는 형상을 뜻하는 낱말 ‘붕(崩)’으로 표현했다.

동짓달이 지나도 음기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며 양의 기운에게 쉽사리 자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천자는 고집스레 버티는 한기를 보내는(送寒氣) 의례를 거행하라 명하여 겨울을 마감하며 다가올 봄을 대비해야 한다.

V. 대나(大難) 축제, 그리고 연극 ‘여인과 사슴’

12월에는 일 년의 날 수가 바야흐로 거의 다하려 하고 해가 장차 바뀌어 일어나려고 하므로, 농민의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쏟도록 하고 다른 일에 부러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⁷³⁾ 이 달에 천자는 담당 관리(有司)에게 명하여 희생(犧牲)

69) 주의 무왕은 상 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紂)를 물리쳐 승리하고 돌아와 주공(周公)에게 명하여 대무(大武)를 만들게 했다. 『呂氏春秋』, 「仲夏紀」, 古樂

70) 그러나 원정(遠征)을 떠나기 전에도 산천제를 지내므로 이때의 악무는 병무라 칭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

71) 『周禮』, 「夏官司馬」, 羊人; 「秋官司徒」, 犬人.

72) 『史記』, 「周本紀」, 幽王 2년.

을 찢어 푸닥거리를 하고 흙으로 소를 만들어 한기(寒氣)가 사라지기를 비는 대나(大儺) 의식을 거행하게 한다. 나례(儺禮 혹은 難禮⁷⁴)는 계춘의 달, 중추의 달, 그리고 계동의 달에 각 계절을 지배했던 기운을 쫓아내는 거행되었던 송시(送時) 의례였으나, 마지막의 경우에만 특별히 대(大)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1. 대나(大儺): 겨울 기운을 물리치는 난장 축제

동짓날 30여일 후 성대하게 나례를 거행하라는 천자의 명을 받은 관리는 행사 하루 전 날에 개와 양의 희생을 찢어서 성문 옆에 걸어 놓고 북을 두드려서 역귀를 내쫓는 방책(旁磔)을 행하도록 지시한다. 대나의 날에는 방상씨(方相氏)가 큰 역할을 한다. 그는 “황금으로 된 4개의 눈을 가진 곰 가죽을 뒤집어쓰고 검은 상의(玄衣)와 붉은 바지(朱裳)를 입고 창을 잡고 방패를 들고서 100명의 노예를 인솔하여 계절마다 나례(難)가 있을 때면 집안을 수색하여 역질을 몰아낸다. (方相氏掌蒙熊皮黃金四目 玄衣朱裳執戈揚盾. 師百隸而時難 以索室毆疫.)”⁷⁵ 『예기』와 『주례』에서는 희생물을 찢어 성문 옆에 걸어두는 의식에 방점을 두어 대나 의례의 성격을 방책(旁磔)으로 규정했다. 반면 『여씨춘추』에서는 방상씨가 가옥을 수색하며(索) 양기의 활동을 방해하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의례의 한 양상을 알려주면서 그 성격을 축제(逐除)로 표현했다.

대나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과정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바로 ‘흙으로 소를 만들어서 동문 밖에 놓는’ 출토우(出土牛) 의식이다. 입춘의 달 첫째 날(元日)에 천자는 제후(諸侯)와 삼공(三公), 구경(九卿), 대부(代父)를 거느리고 왕궁의 적전(藉田)에서 친히 소를 이끌어(牽牛) 쟁기질을 함으로써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농경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와 연관시켜 보면 ‘출토우’ 의식은 입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73) 『呂氏春秋』, 「季夏紀」, 音律.

74) 『禮記』의 「月令」과 『周禮』에서는 대나(大儺)로, 『呂氏春秋』의 「季冬紀」에서는 대나(大儺)로 기록되어 있다.

75) 『周禮』, 「夏官司馬」, 方相氏.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상씨가 걸친 의상의 상징성에 주목해 보면 이 가설은 더 신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서양 천문학에서 큰곰자리(Ursa major) 성좌의 꼬리와 엉덩이 부분에 해당되는 북두칠성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자 모양의 7개의 별로 되어 있다. 괴(魁)라고도 불리는 국자 부분 네 개의 별은 북극성을 향하고 있고 두병(斗柄)이라 불리는 자루 부분의 세 개의 별은 십이지(十二枝)에 해당하는 별(또는 방향)을 차례로 가리키며 북극성 주위를 돌다 일 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 왕조의 창건자 우(禹)의 아들(子) 계(啓)와 관련된 탄생신화를 보면 북두칠성은 고대 중국에서도 곰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는 도산씨(塗山氏)의 여식과 결혼하여 아들 계를 낳았다. 계라는 이름은 돌로 변한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는 탄생 일화로 인해 붙여진 이름으로, 주석가들이 여러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전하는 그 내막을 요약하면 이렇다. 산과 강을 정비하던 우가 현원(軒轅) 산에서 곰으로 변하여 일을 할 때, 그의 아내가 점심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그만 그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 넘어져 쓰러졌다. 당시 우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들을 갖고 싶었던 우는 ‘내 아들(子)을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녀의 북쪽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아들이 나오고 어머니의 신체는 변하여 돌이 되었다(啓生而母化爲石).⁷⁶⁾

주 왕조는 북두칠성이 북방의 자(子)를 가리키는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았다고 한다.⁷⁷⁾ 주나라 역법에서 동짓달을 기점으로 해(年)가 넘어간다면 서북방과 동북방 사이 30°의 구간에 해당하는 자(子)는 전과 후를 포괄하는 영역이다. 검은색은 겨울-북방을, 붉은색은 여름-남방을 상징하는 색이므로 낡은 기운을 쫓아내는 나례 의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상씨의 복장 색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방상씨는 음기를 상징하는 검은색 상의(上衣)와 양기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하의(下衣)를 입고, 되돌아올 네 계절의 태양, 사방 곳곳을 비추는 네 개의

76) Marcel Granet, *Danses et légendes de la Chine ancienne*, Édition nouvelle corrigée et annotée par Rémi Mathieu (Paris: PUF, 1994), 563, n.1.

77) 『史記』, 「曆書」; 『漢書藝文志』, 「數術略」.

황금빛 눈을 가진 곰 가죽을 뒤집어쓰고 큰곰자리 별 북두칠성의 몸짓을 모방하여 곰춤을 추었다.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대나(大難)는 한기를 물리쳐 겨울을 마감하는 의례이자 동시에 양기가 활성화되어 어김없이 이듬해 봄이 오도록 영원하는 몸짓들을 표출했던 송구영신(送舊迎新) 의례였다.

납제와 사제를 다룰 때 이미 언급했듯이 조선 왕조 후기에 납제, 사제, 그리고 대나는 동일시되어 겨울의 마지막 달에 거행되었던 납향제였다. 팔사(八蜡)에 관한 「교특생」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도 전한(前漢) 시기에 이미 대나(大難)와 팔사가 혼합되어 12월 축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학자 마르셀 그라네는 동시대에 사용된 상이한 역법 체계로 인해 팔사제와 납제가 12월 축제로 서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중국인들이 하, 상(은), 주 삼대의 역법으로 간주했던 세 종류의 역법들은 사실 동시대에 사용된 것들이다. 하나는 상용력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력과 농경력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10월과 12월이 혼동되어 맹동의 달(음력 10월)에 거행된 납제와 팔사제가 12월의 대나와 혼용되었다는 것이다.⁷⁸⁾ 게다가 팔사제에서는 백물을 찾아(索) 향응하고 백성들이 미친 듯이 난장의 축제를 즐겼다면, 대나에서는 방상씨가 곳곳에 숨어 있는 나쁜 기운들을 찾아내기(索) 위해 네 개의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흥에 겨워 난리법석을 피며 그 뒤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이 두 축제는 모두 난장(Orgy)의 양상을 띠었기에 현대의 예법가들은 시기의 어긋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 글에서는 납제와 팔사제를 초겨울 축제로 다루었으므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송년(送年) 축제, 대나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는 천자의 궁에서 연행된 한 연극에 주목해보자.

5.2 여인과 사슴, 그리고 사냥꾼

대라씨(大羅氏)는 새와 짐승(鳥獸)의 일을 맡은 천자의 관원이다. 해마다 연말에

78) Marcel Granet, *Fêtes et Chansons anciennes de la Chine* (Albin Michel, 1982), 176-187.

제후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들이 공물로 들어오는데, 사신들이 밀짚 갓(草笠)을 쓰고 그것들을 지참한다. 초립을 쓰고 입궁하는 까닭은 백성들이 들판에서 활동할 때 입는 의복(野服)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대라씨는 사신들에게 사슴과 부인을 주제로 한 연극을 보인 다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돌아가면 모두 자신들의 군주에게 연극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경계의 말을 전하라고 한다. “수렵이나 여색을 좋아하여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⁷⁹⁾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전설적 인물이 있다. 바로 수렵과 여색에 빠져 나라의 몰락을 재촉한 하나라 왕 태강(太康)과 군주 예(羿)가 그랬다.

예는 하(夏) 태강 때의 궁(窮)나라 군주다. 계의 아들인 태강은 정사는 소홀히 한 채 놀이만을 즐기며 돌아다녔다. 어느 날 태강이 낙수(洛水)의 기슭으로 사냥을 갔는데, 사냥 재미에 빠져 100일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오지 않자 예(羿)가 왕위를 빼앗고 태강을 쫓아냈다고 『서경』은 전한다.⁸⁰⁾ 그런데 왕좌를 탈취한 뒤, 예 또한 태강처럼 나라 일은 내팽개쳐 두고 자신의 궁술을 자랑하며 사냥에만 몰두하여 돌아다니다가 한(寒)나라 군주 착(浞)의 아들에게 살해당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예의 반란에서부터 하 왕조의 소강(少康)과 저(杼)가 착의 두 아들을 격파하여 왕권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진(晉) 나라 위강(魏絳)의 입을 빌려 소상하게 전해준다.

왕권을 가로챈 예는 어진 신하는 물리치고 대신 한(寒) 나라 군주 백명(伯明)이 추방한 그의 간악한(姦惡) 아들 착(浞)을 불러들여 재상으로 삼았다. 착은 궁 안의 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 궁 밖의 여러 신하들에게는 뇌물을 주어 매수하여 도가 넘는 예의 사냥놀음에 눈감고 입 다물게 만들었다. 산야에서의 사냥에 눈이 멀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휼할 책무는 잊고 오로지 사슴 잡을 생각뿐이었다(冒于原獸 忘其國恤 而思鹿牡)는 예의 직무 방기는 곳곳에서 반면교사의 범례로 거론된다. 어느 날 예가 사냥터에서 궁으로 돌아가려 하자 착에게 매수된 신하들이 예를 죽인 뒤 그를 삶아서 몸뚱이 고기를 예의 아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러자

79) 『禮記』, 「郊特牲」, “大羅氏 鹿與女 而紹客告也, 而戒諸侯曰 好田好女者 亡其國.”

80) 『書經』, 「五子之歌」.

차마 자신의 아버지를 먹을 수 없었던 예의 아들은 궁 나라 도읍의 성문까지 도망가 자살한다. 이로써 예의 가문은 멸족하나 한 나라의 신하였으나 예를 모셨던 미(靡)는 도망을 쳐 살아남아 훗날 착을 쳐 멸망시키고 하 나라의 왕권을 소강에게 넘겼다.

착의 탐욕은 부자의 죽음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예의 아내를 차지하여 아들 요(澆)와 희(豷)를 낳아, 요(澆)는 과(過) 나라에, 희(豷)는 과(戈)나라에 거처하게 한다. 과 나라를 얻은 요의 방종도 그 애비 착 못지않다. 강건한 신체를 견고한 의복으로 무장하고 지내는 그는 욕심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탐욕을 채우고야 마는 인물이다(澆身被服強圍兮, 從欲而不忍).⁸¹⁾ 요는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로 지내는 형수 여기(女岐)를 취하여 즐기다가 자신의 목을 베러 온 적에게 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고 대신 형수가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만다.⁸²⁾ 요행히 목숨은 부지했던 요도 결국에는 하(夏)왕 소강(少康)에게, 요의 동생 희(豷)는 소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저(杼)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로써 한 나라 또한 예의 궁 나라와 마찬가지로 멸족지화(滅族之禍)를 면치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다.⁸³⁾ 예와 관련된 일화들을 통해 고대 중국의 군주들은 예를 현혹시켰던 ‘사슴 사냥과 여인’은 궁(窮) 나라와 한(寒) 나라를 몰락시킨 저주의 도화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중국 신화학자나 고대 중국 연구자들은 하 태강의 왕위를 찬탈한 예를 대체로 역사적 인물로 간주한다. 위 내용을 전하는 문헌이 『서경』과 『춘추좌씨전』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오자지가(五子之歌)」의 편찬 의도와 역사적 인물로 묘사하는 예의 일화들을 언급하는 정황을 보면 ‘과연 이 일화들이 역사적 사실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오자지가」는 『금문상서(尙文尙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작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오자란 하 태강의

81) 『楚辭』, 「離騷」.

82) 『招辭』, 「天問」.

83) 『春秋左氏傳』, 「襄公」(四年) 편과 「哀公」(一年) 편에서 전해진다. 예와 관련된 이 일화들은 김현자,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서울: 책세상, 2004), 118-127.에 일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다섯 동생을 일컫는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섯 형제가 차례로 할아버지 우(禹)의 교훈을 노래하는 데, 그 중 둘째의 노래에는 사냥과 여인에 관한 경고가 들어 있다. “가르침이 있으셨으니,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 놀음에 빠지는 것,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는 것, 높은 집과 조각한 담을 두르는 것, 이 중 어느 하나에만 빠지는 이가 있다면 망하지 않을 자 없으리니.” 「오자지가」 편이 위서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군주가 주색잡기와 사치에 빠져드는 것, 간악한 신하가 군주를 기망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임을 경고하기 위해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 전해지던 일화들이 어느 시기에 『서경』에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춘추좌씨전』에서도 양공(襄公)이 위강에게 예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예는 자신의 궁술을 믿고 백성들의 일에는 힘쓰지는 않으면서 산야의 짐승들을 잡는 사냥에만 빠져들었던(恃其射也 不脩民事 而淫於原獸)” 인물이라고 답한다.

게다가 궁 나라 군주 예와 한 나라 군주 백명의 아들 착의 일화에 나타나는 국명과 인명에서는 대립되는 요소들이 발견되며 모두 종말, 쇠락, 겨울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또 다른 전승에서 예는 곡식과 초목을 불태운 열 개의 태양과 괴물들을 활로 쏘아 제거하여 백성들을 가뭄과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국의 영웅이다.⁸⁴⁾ 그가 활로 쏘아 죽이거나 사로잡은 괴물들 중에는 봉희(封豨)라는 멧돼지도 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지상에 열기를 퍼뜨리는 10개의 태양을 쏘아 가뭄을 해소한 명궁수(名弓手) 예, 치한(治旱)의 영웅이었던 그가 다스렸던 나라 이름은 궁(窮, “다할”)이고 그를 죽인 이는 한(寒) 나라 군주의 간악한 아들 착(泔)이다. ‘한(寒)’은 차가운 겨울 기운을 뜻하며 ‘착(泔)’은 몸이 물에 잠기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착의 아들과 예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 형수를 탐한 ‘요(澆)’의 이름은 논밭에 물을 대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고, 그가 얻은 땅은 아버지의 과오를 상기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과(過)이다.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물, 더위와 추위의 대립이다. 하 나라 왕이 된 저(杵)가 착의 아들 ‘희(豨, 돼지의 숨결)’가 있는

84) 『淮南子』, 『本經訓』; 『山海經』, 『海內經』.

과(戈) 나라를 쳐서 크고 단단한 몽둥이(杵)로 때려잡아 죽였다면, 활 쏘는 기술이 뛰어나 날아가는 새도 잡는 예⁸⁵⁾는 멧돼지 ‘봉희(封豨)’를 뽕나무 숲(桑林)에서 사로잡았다.⁸⁶⁾ 예의 무기 활과 화살(弓矢)이 멀리 보이는 대상을 겨냥하는 무기라면 창과 방패(戈)는 눈앞에 보이는 대상과 겨룰 때 사용하는 무기다.

이상의 점들로 미루어볼 때, 궁나라 군주 예와 관련된 패륜의 이야기는 대라씨가 제후국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시슴과 여인을 주제로 한 교훈적 연극의 각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I. 나가는 말

한때 구미 지역의 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전통종교의 특성이 ‘조상숭배’로 오인될 정도로 동아시아인들은 혈족의 뿌리를 기리는 제사 의식을 중요시 했다. 사실 혈족의 조상을 기억하여 기념식을 거행한 곳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고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했다. 그럼에도 굳이 동아시아의 전통 종교를 조상숭배로 특징짓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로마제국 이후 유일신 사상의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된 유럽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의례들은 종교적 색채를 탈각하여 모두 세속적 축제로 바뀌었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개별 가문에서 행해졌던 조상 제사가 유독 빈번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장구한 세월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조상숭배 의례는 유교 문화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다.

고대 중국의 다양한 겨울 의례는 인간은 물론 우주 내 모든 존재들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하나의 의례는 독립된 별개의 의례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 거대 체계의 통합적 부분들이다. 겨울 의례들은 또 봄, 여름, 가을 세 계절과

85) 『淮南子』, 「原道訓」, “羿逢蒙子之巧 以要飛鳥.”

86) 『淮南子』, 「本經訓」.

함께 전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본질이 탈각되고 형식만 남은 예의 규범들은 번잡스런 구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낡은 행태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작업은 미래를 향한 열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다. 이 글에서는 겨울 의례들을 통해 고대 중국인들이 예라 일컬었던 모든 인간 행위의 범례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 제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범례들은 인간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우주 구성물들과 마찬가지로 우주내의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것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천지인의 소리와 몸짓이 조화롭게 화합하여 어우러진 거대한 축제의 장이었던 유교의 제사들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고찰한 국조 의례들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일반 백성들의 겨울 생활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연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약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자료들이 바로 고대 별자리 명칭과 신화이다. 이 연구가 추가되면 우리는 민중들의 겨울 생활상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천자의 겨울맞이 의례, 보본반시의 겨울 제사와 축제, 대할제, 납제, 팔사제, 천자의 재계, 동지제, 송구영신의 대나 축제, 방상씨의 곰춤

원고접수일: 2020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8일

참고문헌

- 『大戴禮記』. 續四庫全書, 上海: 上海古蹟出版社, 1995.
- 董仲舒. 『春秋繁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穆天子傳』.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墨子閒詁』. 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86.
-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83.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山海經校注』, 袁珂 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 『書經』. 十三經注疏, 清 院元 校刻, 北京: 中華書局, 1979.
- 『詩經』. 十三經注疏, 清 院元 校刻 (北京, 中華書局, 1979).
- 『呂氏春秋』. 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86.
- 『禮記正義』. 十三經注疏, 院元(清) 校刻, 北京: 中華書局, 1979.
- 『莊子』. 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86.
- 孫詒讓(清).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
- 『周易』. 十三經注疏, 院元(清) 校刻, 北京: 中華書局, 1979.
- 『竹書紀年』 沈約 注 ; 沈頤煊 校,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楚辭補注』. 洪朱興熹祖, 北京: 中華書局, 1981.
- 『春秋左傳正義』. 十三經注疏, 院元(清) 校刻, 北京: 中華書局, 1979.
- 김현자.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서울: 책세상, 2004.
- _____. 『천자의 우주와 신화-고대 중국의 태양 신앙』. 서울: 민음사, 2013.
- 장 사요위엔(江曉原). 『별과 우주의 문화사』, 홍상훈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05.
- Schlegel, Gustave. *Uranographie Chinoise*(星辰考原). Leyde & E. J. Brill, 1875.
- Granet, Marcel. *Danses et Légendes de la Chine ancienne*, Édition nouvelle corrigée et annotée par Rémi Mathieu. Paris: PUF, 1994.
- _____. *Fêtes et Chansons anciennes de la Chine Paris*. Albin Michel, 1982.

Mauss, Marcel. “Essai sur le don : Forme et raison de l'échange dans les sociétés archaïques.” In *Sociologie et Anthropologie*. Paris: PUF, 1973.

Couvreur, Séraphin. *Mémoires sur Les Bienséances et Les Cérémonies LI KI(禮記)*. Paris: Les Belles Lettres, 1950.

Abstract

Some Representations of Hibernial Life in Ancient China **- Festivals, Constellations, and Myths -**

Kim, Hyun-j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reflect on the essence of Confucianism by inquiring into hibernial rites and festivals of ancient China. Although this study limits itself to winter rituals, since these rituals were meant to harmonize the natural order of Heaven, earth, and man, they show us the essence of Confucian ritual culture, which emphasized conduct that is attuned to time and place. In ancient China, the winter began when the Son of Heaven went to the north of the capital and held a ceremony to welcome winter in the first week of the first winter month, thus spreading the hibernial air across the world. The various offerings and festivals that took place during the rest of winter were rituals of gratitude to all beings in the universe, people and their ancestors, for their efforts toward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these were rites of regeneration in which people and ancestors alike were sent back to their homes to recuperate and thus prepare for the next year. Through the rite of the winter solstice and purification, the Son of Heaven awakened the life force that was enveloped by darkness. At the end of winter, an exorcist (Fangxiangshi 方相氏) wearing an inside-out bearskin on which four golden eyes were painted went around the houses dancing a bear dance to expel the cold energy and prepare for spring.

Key Words: ceremony of receiving the winter, winter sacrifice in gratitude for royal ancestors, blood sacrifice to spirits of the land and the gate, rites and festivals in gratitude for all beings in the universe, winter solstice ritual, purification of the Son of Heaven, expelling rite of cold energy, dance of the Great Bear